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교육 지원활동의 매개효과

2020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李 伶

국문초록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교육 지원활동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령

한국 사회는 1990년대부터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 문화적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고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구성원에 포함되면서 이들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와 사회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입국하여 다차원적인 고충을 경험하며 특히 육아시기와 문화적응시기가 겹쳐 문화적응과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과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효능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에서 자신이 잘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낮게 자각하고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증가와 관련하여 문화적응에 주목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양육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양육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응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적응 유형 및 그 정도에 따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나고 문화적응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양육효능감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이 중요하다. 학부모의 교육지원은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효능감을 이끌어낸다.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 교육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교육 지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낮은 양육효능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론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활동이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 영향에 자녀교육 지원활동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은 문화적응을 결과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문화적응 정도가 자녀교육과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문화적응이 설명하는 양육효능감 변량의 어느 정도가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의해서 설명되는지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부모용 6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1,239명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프

로그래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 분리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고 주변화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이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체성 유지가 중요함에도 간과되는 부분이 많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할 것을 강요하기 보다는 원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주문화를 그들과 함께 동일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지원 과정에서 정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자녀 연령별, 단계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자녀교육과 관련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교육으로 양육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여성결혼이민자, 양육효능감, 자녀교육 지원활동, 매개효과

학번: 2017-20168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8
제 2 절 양육효능감	12
제 3 절 문화적응	16
제 4 절 교육 지원활동	20
제 5 절 문화적응, 교육 지원활동 그리고 양육효능감의 관계	23
1. 문화적응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23
2. 문화적응과 교육 지원활동의 관계	25
3. 교육 지원활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26
제 6 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27
1. 연구가설	27
2. 연구모형	29
제 3 장 연구방법	30
제 1 절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30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변수 측정방법	31
1. 종속변수	31

2. 독립변수	32
3. 매개변수	32
1)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32
2) 학교활동 참여도	33
4. 통제변수	33
제 3 절 분석방법	36

제 4 장 연구결과37

제 1 절 조사대상자 특성 검토	37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7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40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41
제 2 절 교육 지원활동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45
1.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 영향관계	45
2.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 참여도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48
1) 동화유형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과 ‘학교활동 참여도’ 의 이중매개효과	48
2) 통합유형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과 ‘학교활동 참여도’ 의 이중매개효과	50
3) 분리유형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과 ‘학교활동 참여도’ 의 이중매개효과	53
4) 분리유형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과 ‘학교활동 참여도’ 의 이중매개효과	54
3. 가설검증결과 요약	57

제 5 장 결론	58
제 1 절 연구요약 및 논의	58
제 2 절 연구의 함의	62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63
참고문헌	67
Abstract	79

표 목차

<표 2-1>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17
<표 3-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5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9
<표 4-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41
<표 4-3> 변수 간 상관관계	43
<표 4-4>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 영향관계	47
<표 4-5> 동화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매개 효과	49
<표 4-6>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랩 결과	50
<표 4-7> 통합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매개 효과	51
<표 4-8>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랩 결과	52
<표 4-9> 분리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매개 효과	53
<표 4-10>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랩 결과	54
<표 4-11> 주변화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매 개효과	55
<표 4-12>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랩 결과	56
<표 4-13> 가설검증 결과 요약	57

그림 목차

<그림 2-1> 연구모형	29
<그림 4-1> 연구모형 결과	52

제1장 서론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가 간 인적교류의 증가로 인하여 국경을 넘어선 자유로운 이주가 보편화 되고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들의 이주화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사회는 1990년대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일환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 수는 현재까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강만철·이숙자, 2017). 그 추세를 살펴보면 2006년 93,786명에서 2010년에는 141,654명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 1월 기준 155,876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법무부, 2018). 그 중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130,498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83.7%를 차지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였고 이는 가정 구성원의 변화, 즉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이어져 현재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되었다.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제시와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하였다(전보영, 2012). 그러나 이미 출신국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어진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국제결혼은 도전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국가로 이주하여 새롭게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민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회적 편견, 남편이나 시어머니와의 갈등, 정보로부터 소외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활동의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다(김도희, 2008).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78.2%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확령기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87.2%가 학부모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통계청, 2019).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모국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자녀 양육방식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김만호, 2018).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적 양육 상황을 겪고 있다(최효식, 2017).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와 사회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입국하여 현실 생활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문제 등 다차원적인 고충을 겪는다(이선미 · 이경아, 2010).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주와 동시에 바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이주 후 평균 1년 3개월 만에 첫 자녀를 출산한다(김순옥 · 김현숙, 2016). 때문에 육아시기와 문화적응시기가 겹쳐 문화적응과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다.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감 하락은 심리적 위축과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자녀 양육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양육부담감으로 이어지게 된다(김순옥 · 김현숙, 2016). 양육부담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강복정 외, 2016).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그들의 자녀 양육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은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필요한 학습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 때문에 취학 전 교육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입학 후 학업부진을 겪고 이로 인해 학업격차가 발생한다(전보영, 2012). 또한 어머니가 느끼는 부담감은 자녀가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며 비행 행동을 하는 원인이 된다.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과도

한 스트레스는 위축된 행동을 보임으로써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하며 중국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행동상의 문제를 초래한다(전상미, 2006). 이렇듯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부담감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효능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잘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다(김미정·염동문, 2015). 이는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낮게 자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질 좋고 바람직한 양육을 제공하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Coleman & Atherine, 1997; 최형성, 2010).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양육효능감이 높다면 자녀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것이며 자녀의 제반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증가와 관련하여 문화적응에 주목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양육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양육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응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 혹은 집단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가질 때, 한쪽 혹은 양쪽의 본래 문화패턴이 변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Berry, 2008). 문화적응 유형 및 그 정도에 따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나고 문화적응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친다(전보영, 2012). 이는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다루었다(김도희, 2008; 장덕희 외, 2015; 전은애, 2008; 진형주, 2010; 한지은, 2007). 이들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짐을 밝혔다. 또한 여성결

혼이민자들이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유형에 따라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차이가 나타남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응유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양육효능감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 지원활동이란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려고 수행하는 실제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학부모의 교육지원은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효능감을 이끌어낸다(양연숙·권정임, 2010). 이처럼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지원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심미옥, 2003).

여성에게 자녀가 학교에 취학한다는 것은 생애발달적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일이다(류진아, 2011).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가정에서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입시경쟁이 본격화되어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과 기대가 증가한다(한아름, 2016). 그러나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녀교육과 양육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교육기관에서의 학부모 모임이나 학교활동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전홍주 외, 2008). 경북지역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자녀교육의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숙제 및 기초교과 지도’ 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배상식·서미옥, 2013). 고학력 여성결혼이민자들도 동일한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학력에 상관없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녀교육 지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여성결혼이민자의 낮은 양육효능감으로 이어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자녀교육 지원활동은 양육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그들에 대한 연구는 비교

적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그들의 자녀교육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하여 취학연령이 된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조사, 언어소통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관계망의 취약성, 차별과 편견, 결혼생활 적응, 고부갈등의 문제, 취업문제 등 그들이 한국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김성숙, 2012; 박미숙 외, 2014; 박미은 외, 2012; 이현심, 2014; 임혁, 2010; 정명희, 2013).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주 후 초기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시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하여 정책적, 임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자녀 양육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학령기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초기의 적응기를 거쳐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을 무렵 그들의 양육효능감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강만철 · 이숙자, 2017; 김도희, 2008; 김미정 · 염동문, 2013; 김소희, 2016; 김현경, 2009; 박희진 · 문혁준, 2013; 배경의 외, 2010; 최효식, 2017; 최형성, 2009; 최형성, 2010; 표윤경,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적응 및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정신건강 등 다양한 변인들이 거론되고 분석되었다. 그중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양육효능감과 관계에 초점을 두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김만호, 2017; 김소희, 2016; 박소은 · 이채원, 2012; 이영남, 2010; 이지선 외, 2013; 진형주, 2010). 그러나 이들 연구는 자녀교육과 관련한 변인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문화적응 과정에 겪는 스트레스만을 밝히고 그

결과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자라서 학교에 입학하고 그들도 어느 정도 한국문화에 적응한 이 시점에, 문화적응의 정도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 결과가 자녀교육 수행이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표집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도출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의 대표성 및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본의 일반화와 해당 집단의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 취학과 관련한 경험과 자녀교육문화 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들이 있다(김갑성, 2008; 김유진·오성배, 2013; 류진아, 2011; 이은아, 2011; 전홍주 외, 2008). 이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지원 실태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및 대처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질적연구로 진행됨으로써 양적연구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감정이나 행동, 생각을 심층면담을 통하여 그들의 경험 세계 안에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고 개인의 고유성을 통해 연구문제의 함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은 그 특성상 제한된 인원의 대상자에 대하여서만 연구가 가능하고 연구범위 또한 특정된 일부 지역에 제한된다. 여성결혼이민자 내부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이들 대다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자녀 교육지원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만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교육 지원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탐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교육 지원활동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이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데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문

화적응유형이 어머니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현재는 다문화가정이 정착기에 들어섰으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들은 학령기에 접어들어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실태조사나 적응의 과정보다는 그들의 생애발달단계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대규모 통계조사인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부모용 6차 자료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 교육 지원활동, 양육 효능감 간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영향을 주어서 이러한 활동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구체화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에 따라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있는가?
2.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은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이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인가?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결혼 이민자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지칭한다(다문화가정지원법, 2017).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정의하는 용어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들에서 결혼 이주여성, 이주여성, 이민여성, 다문화가정여성, 국제결혼여성 등의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 등 정부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사회통합지원에서 채택한 용어로 ‘여성결혼이민자’ 라는 용어가 있다(김미영, 2016).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남성과 결혼, 이혼, 별거 상태에 있고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로 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이다.

국제결혼은 1980년대 통일교회라는 종교단체를 통해 한국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의 증가를 계기로, 1990년대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2000년대 이후 여성단체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유입되면서 한국의 국제결혼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김오남, 2006). 동시에 다문화가정의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278,036가구로 추정되었으며, 이 수치는 2012년에 비해 4.3% 증가하였다(통계청, 2016).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가정의 9-24세 국내 성장 자녀는 79,18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다문화가구 중 자녀가 한 명인 가구가 36.5%로 가장 많고, 2명은 22.5%, 3명 이상은 4.3%에 달한다. 다문화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02명으로 모든 가구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위해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통합되어 그들을 보호해야하는 측면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야 한다. 타 사회에서 유입된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주류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김만호, 2018). 때문에 우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했던 남녀의 결혼생활에는 충돌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단위의 이주가 아닌 홀로 낯선 이질적인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에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언어장벽, 문화장벽, 상이한 가치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우울, 불안,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회통합에서의 방해물로도 작용한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의 통계결과에 근거하면 결혼이민자, 귀화자 중 85%가량이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언어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외로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3.6%, 경제적 어려움은 33.3%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가 주된 어려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3.2%를 차지하였다. 2012년의 조사수치와 대비하였을 때 외로움, 가족갈등, 자녀양육 방면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증가한 반면, 경제적 어려움, 언어적 어려움, 문화적 차이, 편견과 차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겪는 어려움들을 종합해볼 때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언어소통과 관련된 어려움이다. 3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언어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언어소통이 일상생활 어려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대다수가 짧은 만남기간 후 결혼하여 한국사회로 이주하기에 한국어를 거의 습득하지 못한 채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어능력은 결혼이민자의 새로운 문화환경에서의 대인관계를 위한 도구로써 결혼이민자의 자존감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지현 외, 2013).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은 이들이 가족구성원에게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전달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맺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가족 내에서 고립감을 겪게 한다(송지현, 2009; 양명숙·이혜선, 2011). 또한 사회적 상호교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심할 경우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며 문화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이다(김희정, 2014)

둘째, 문화적응과 관련된 어려움이다. 국제결혼은 서로 다른 두 개 문화의 결합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상의 어려움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출신국에 대한 이해 부족, 가치관의 차이, 서로 다른 생활습관, 한국의 가부장적 정서 등에 따른 문화적 갈등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김현숙, 2006; 김희정, 2010). 이러한 차별과 갈등으로 인한 위축감, 낮은 자존감,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그들의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양육효능감은 감소하여 자녀 양육에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수행한다(이경숙, 2015).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다. 앞서 언급한 언어소통과 문화적응으로부터 이어진 또 다른 문제점이다. 한국어 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와 한국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진행하여 양육주체로서 자녀 양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박현선 외, 2012). 반면 한국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언어발달에 대해 근심을 보이고, 학교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이은아, 2013). 이는 결국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무능감으로 이어지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낮은 양

육효능감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차이에 따른 자녀 양육방식 차이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들과 갈등을 겪는다(남인숙·장훈성, 2009). 특히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어 학교생활을 시작하면 교과내용이나 학습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과 관련한 정보 부족, 한국식 경쟁교육으로 인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한국어가 능숙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 교과과목, 학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녀에게 직접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유진·오성배, 2013).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업부진, 이중언어로 인한 언어능력지체,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혼란 등 이유로 인해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겪고 심한 경우 친구들 간 따돌림을 경험한다(홍영숙, 2007).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은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 준다는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양육에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서보준, 2017; 이지영, 2012).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의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어머니로서 양육효능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언어소통, 문화적응 문제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 부모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와 판단인 양육효능감은 부모로 하여금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취하게 하여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도록 한다(Mondell&Tyler, 1981).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를 양육, 교육하는 과정에 스트레스 상황이나 문제상황에 직면할 때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양육효능감의 향상을 통하여 본인을 유능한 부모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생애주기가 부모기로 접어들면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김

희정, 2014).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제2절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가진 인지적 특성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긍정적인 성장, 발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변인들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여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희정, 2014; Bandura, 2001; Coleman, 1998). 양육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에서 나온 개념적인 내용을 자녀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것이다(Coleman, 1998).

자기효능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나 임무를 잘 해결하고, 어떠한 행동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으로 개인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요인이다(Bandura, 2010). 또한 어떤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행동적, 인지적 기능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기제이다. 즉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과 자신에 대한 신념이다. 실제 능력에서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경험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간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역경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에 대해 의심하고 불안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변 환경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도전을 회피하려 한다

(Coleman, 1997).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정의를 양육현장에 적용한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에 대해 살펴보면 자녀를 잘 양육, 훈육하며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더라도 스스로 잘 해결해낼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며 자신의 부모능력에 대한 판단과 믿음이다(Johnston&mash, 1989). 양육효능감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양육효능감에 대해 내린 정의를 살펴보면, 강만철과 이숙자(2017)는 양육효능감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수행하며 양육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김미정, 염동문(2013)은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능동적으로 조율하고 일관된 양육을 제공하는 능력과 의지라고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행동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수행 능력에 대한 지각과 양육행동을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도 정의한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신이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며 이러한 신념은 자녀양육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촉진작용을 하면서 자녀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정, 2014).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및 전반적인 발달에 도움을 준다(최형성, 2009). 그 밖에도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도록 하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며,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안녕을 촉진한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부모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게 하며 잘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양육효능감은 필수적이다.

어머니의 여러 심리적 요인 중 양육의 효율성이나 문제상황에 대한 극

복기제 등에 대한 관심이 조명되면서 다문화가정 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김도희,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일반가정에 비해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 그 수가 증가하였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주변 환경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있으며 양육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한다(김도희, 2008).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이 강화되면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유도하고 이는 대인관계, 학교적응, 학업성취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미정·염동문,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주목한 선행연구들도 있다. 한국어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모역할 효능감이 높다. 이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만족시켜주는데서 효능감을 얻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전보영, 2012). 사회적지지도 양육효능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요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변의 다양한 지원을 확보하여 사회적 지지를 많이 제공 받는 어머니일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박수경, 2013; 정명희, 2013). 이는 어머니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부족한 자원이 충족되어 긍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박희진·문혁준, 2013; 이지선 외, 201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내적 요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을 들 수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주민’이라는 특성상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반가정 어머니들보다 불안감, 소외감, 우울과 같은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는 자녀양육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이지선 외, 2013). 실제로 우울을 경험한 어머니는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행동과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비우울집단 어머니들보다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연, 2012; 박희진·문혁준, 2013). 또한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신감과 긍정적 신념을 향상시켜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양은호·최혜순, 2011; 이승희·박응임, 2016). 유사한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도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만철·이숙자, 2017).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문화적응은 양육효능감을 증가시키는 직접효과를 가진다(장덕희 외, 2015). 진형주(2010)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이 자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동화유형을 가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반면 전은애(2008)는 통합유형을 가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고, 한지은(2007)은 분리 유형을 가진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효능감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밖에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 가구소득(박희진·문혁준, 2013), 교육수준, 한국거주기간(최형성, 2010), 자녀의 연령, 출생순위와 같은 자녀관련 변인 등이 유의미하게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볼 때 부모역할에 대한 의지와 능력인 양육효능감은 자신의 양육태도나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인식이며 나아가 일관성 있는 양육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이다. 특히 자녀 양육과정에서 일반가정 부모들보다 더 많고 다양한 문제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 양육효능감은 효과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사회적,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스스로 통제하여 양육효능감을 강화함으로써 임파워먼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제3절 문화적응

문화적응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집단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발생하는 변화이다. 이 현상은 사회적 구조, 생활의 변화, 개인의 행동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김혜은, 2012). 문화적응의 개념은 Redfield, Linton과 Herskovits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그들에 의하면 문화적응이란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두 집단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어느 한 집단 또는 두 집단 모두의 문화패턴이 변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Redfield&Linton, 1936). 문화적응의 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접촉단계로 서로 상이한 문화가 만나는 초기의 단계이다. 다음은 갈등단계로 이 시기에는 지배적인 집단에 의해 변화의 압력이 가해져 이주민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위기에 봉착한다. 마지막으로 해결단계로써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시기이다(Nwadiora&mcadoo, 1996).

문화적응은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여 갈등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서재복 외, 2016). 초기의 문화적응 정의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경우였다. 그러나 Berry(1997)에 의하면 문화적응은 유일한 유형이 아니며, 한 집단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만이 아닐뿐더러 각 집단의 변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반응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형식을 자극하며 긴 시간을 두고 일어날 변화를 시작하는 과정이다. 오늘날 문화적응 현상은 이민, 다국적 기업활동, 파견근무, 유학, 여행 등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 간 상호교류가 증가하면서 학문적 주제로 자주 등장하였고, 국제결혼이 국내에 확산되면서부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문화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198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론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김만호, 2018). 문화적응에 관련된 이론은 크게 문화학습이론, Lazarus&Folkman의 스트레스 대처이론, 사회정체성이론,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유형과 관

련하여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면서 문화적응을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Berry(1997)는 문화적응 연구에서 집단수준에서의 문화적응과 개인적 수준에서의 문화적응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눴다. 이는 집단에서 문화적응 과정에 있어서 모든 개인의 경험이나 적응 정도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수준에서의 문화적응은 그 문화권에서 개개인의 가벼운 행동의 변화일 수 있고 가치관, 종교적 신앙,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집단적 문화적응은 한 그룹이 새로운 문화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수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과 환경의 능동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erry는 문화적응을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여 <표 2-1>과 같은 문화적응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표 2-1>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차원1	자신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아니다
차원2	주류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아니다	분리(separation)	주변화 (marginaliazation)	

개인이 문화접촉으로 변화를 겪을 시에 2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접하게 된다. 첫째는 문화유지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이고 둘째는 참여에 관한 것으로 주류 사회에 접촉, 참여하면서 다른 집단에 포함되거나 그들 사이에서 체류하

면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이다(Berry, 1997). 즉 개인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이주문화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추구한다면 동화유형이고,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와도 접촉,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통합유형으로 정의된다. 또한 자신의 고유문화 유지에만 가치를 두고 주류문화에 소극적으로 대하고 참여도 피하려 한다면 분리유형, 전통문화유지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고 새로운 문화에 참여하는데도 소극적이고 이주문화와 일정한 거리를 둔다면 주변화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Berry(200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통합유형에 속하는 자들이 주변화유형을 취하는 자들보다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문화적응에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화와 분리는 적응의 중간 정도에 달성한다. 즉 모국 문화와 주류문화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참여하는 통합유형이 가장 나은 적응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Berry의 문화적응 유형을 토대로 한 Ward와 Deuba(1999)의 연구에서 역시 통합유형을 취하는 이주민들의 심리적 고통을 적게 겪고, 동화유형을 떠는 이주민들은 사회적 어려움을 적게 겪는 것으로 밝혀냈다. 그러나 자신의 고유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근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도 존재한다(Luijters et al., 2006). 주변화유형과 관련하여 Leong & Leong(2004)은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주변화 유형에 속할 경우 모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모국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주변화유형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주류사회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모국사회에 재적응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방황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문화적응을 함에 있어서 모든 집단과 개인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개인이 어떤 유형의 문화적응을 수행하느냐는 모국 문화와 주류문화의 충돌과 갈등을 어떤 전략으로 해결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또한 문화적응 유형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발달과정에 따라서도 변화될 수 있다(진형주, 2010). 때문에 이민자가 변함없이 한 가지 문화적응 전략만을 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민자들이 인지하고 선호한 문화적응유형을 주류사회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그 양상이 달라진다(김도희, 2008).

일반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문화적응이란 개인이 둘 이상의 문화를 조정하는 방식으로써 한 개인이 문화에 직면하여 통합되거나 차별화되는 과정이며 이는 자신이 기존문화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가치체계의 선택적 수용이라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게 됨을 의미한다(Berry, 2002).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의 과정은 일정한 적응단계에 따라 적응하기보다는 개인에 따라 적응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김현경, 2009). 이러한 현상은 여성결혼이민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은 이주사회에서의 재사회화나 가정에서의 부모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한국사회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지지에 따라 문화적응 유형은 영향을 받으며, 반대로 결정된 문화적응 유형 또한 그들의 생활과 심리적 요소에 영향을 준다. 앞서 요약하였듯이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지원에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동화 및 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역할 수행이 적극적이고 분리, 주변화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지원이 감소하였다(김만호,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한 문화적응 유형이 그들의 양육효능감을 어떻게 결정하고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4절 교육 지원활동

부모의 교육 지원활동이란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 부모와 학교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며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부모가 조력하고 행사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한다(송윤희, 2011). 또한 부모가 자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부모참여 및 부모개입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라는 용어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나타내고 참여하는 여러 유형들을 설명한다. 이 참여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로는 학부모의 학교성적 기대, 학교생활에 대한 언어적 격려 또는 상호작용,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강화, 일반적인 학업지도 및 지원, 자녀의 일상활동 및 학업 감독, 학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등이 있다(Fehrmann & Keith, 1987).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내용을 기준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동은 자녀의 학교적응, 학업성취도 향상, 성격발달을 포함한 아이들의 성장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2004).

Epstein(1987)은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부모의 기본적 의무, 가정과 학교의 의사소통, 학교에서의 부모지원, 가정에서의 학습지원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심미옥(2003)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동의 유형을 분석하여 가정배경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 지원활동을 자녀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적 태도와 실제적 행위로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가정에서의 교육 지원활동, 심리적 지원 관련 교육 지원활동, 학교 활동 관련 교육 지원활동, 학교 밖 교육을 통한 교육 지원활동 네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마다 하위요인을 두어 총 13가지 유형으로 자녀교

육 지원활동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송윤희(2011)는 부모의 교육 지원활동을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녀의 학교 교육에 다방면으로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는 자원봉사를 통하여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교통정리에 지원하는 등 학교발전에 이바지하고 선생님들에게 협조적이고 우호적이며 자녀의 학교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다. 교육 지원활동을 측정하는 척도는 총 30가지로 3가지 하위요인인 가정중심 교육 지원활동, 학교중심 교육 지원활동, 심리적 교육 지원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단순히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사교육과 경제적 지원 외에 가정 내 학습분위기 조성, 정서적 지지 및 학교활동 지원도 교육 지원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한아름(2016)은 그의 연구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지원실태를 성적향상 관련활동, 가정환경 조성활동, 통제활동, 학교생활 지원활동, 물리적 교육환경 조성 등 5개 하위요인,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이나 학업에 대한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바 있다(문은식·기충희, 2003; 신지연 외, 2016; 최인재·오수연, 2010). 이러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의 중요성은 다문화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현재까지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관련연구는 학령기 자녀교육 실태조사(김갑성, 2008; 배상식·서미옥; 2013),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제에 관한 연구(전홍주 외, 2008), 교육문화 적응(박순용·오덕렬, 2012)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과정의 전반을 탐색하고, 교육과정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크지만 실질적인 교육지원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교육 지원활동을 탐색한 연구들에서는 교육 지원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전홍주, 배소영, 곽금주(2008)는 자녀교육지원을 자녀교육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실제적 지원으로 범주화하였고 실제적 지원을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가정에서 언어습득 및 숙제 도와주기, 준비물 챙겨주기와 같은 지원은 직접적 지원에 포함되고 간접적 지원에는 교육분위기 조성, 학원 보내기, 학교와의 교류 등이 있었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 교육열을 탐색한 김유진, 오성배(2013)는 계층적 배경을 고려하여 교육 지원활동을 자녀교육 지도 및 감독관리, 정보수집활동, 재정지원정도, 가정 내 교육적 환경 제공 등 4가지로 유형화하여 교육 지원활동을 확인하였다. 교육지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수행을 살펴본 김만호(2018)의 연구에서는 학업지원, 사회성 지도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자녀교육 수행을 측정하였다.

이상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 지원활동을 크게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지원과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교육체계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여 자녀의 학업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김승희, 2011). 또한 언어적 한계와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지 못해 자녀교육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김유진·오성배, 2012). 그밖에도 언어장벽과 문화적 부적응으로 하여 학부모 모임이나 학교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류진아, 2011; 이은아, 20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취학관련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학교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한국어 실력의 부족으로 인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학부모의견서에 자신의 의견을 적지 못하는 경험을 한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한국인 엄마들이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기에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낯설어서 잘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류진아, 2011).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

녀교육 지원에 있어서 자녀의 학교활동 지원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는데,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 노릇에 대한 걱정을 일찍부터 한다(이은아, 2013). 특히나 학벌과 성적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학업성적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머니가 가장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상,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엄마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위하여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심리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전홍주 외, 2008), 자녀의 학업과 학교활동 참여에 큰 어려움과 부담감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과 자녀 학교활동 지원을 교육지원활동의 하위요인으로 범주화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5절 문화적응, 교육 지원활동 그리고 양육효능감의 관계

1. 문화적응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실제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많이 선행되지는 않았지만 보고되고 있는 소수의 연구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도희(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문화

적응 요소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로 작용하고 일반가정의 어머니들과는 차별되는 중요한 요소로 문화적응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화적응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연구들에서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났다. 문화적응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불안감이 높아지고 효능감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박수경, 2013). 이는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도와 원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높을수록, 즉 통합유형을 보이는 어머니일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같은 맥락으로 전보영(2012)의 연구에서는 통합적 문화적응 유형이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지능력과 부모신념이 높아져 양육효능감이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한지은(2007)은 문화적응 유형 중 분리만이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보고하였다.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도 고유문화 정체성을 간직하고 확립하였을 경우 자신감을 갖고 자녀양육에 임하여 효능감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진형주(2010) 역시 통합 유형은 양육효능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화유형을 나타낼수록 전반적인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강만철·이숙자(2017)는 이주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 곧바로 높은 양육효능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양육효능감의 향상은 단순히 문화적응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닌 양육에 관한 주변의 다양한 지원, 타인의 정보 및 지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문헌연구들은 분석결과가 일관적이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과 양육효능감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문화적응유형이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진술한 선행연구들은 특정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연구이기에 전국 각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된 대표성이 있는 표본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2. 문화적응과 교육 지원활동의 관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자녀교육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가 클수록 문화적응이 더 어렵고 이는 자녀교육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김승희, 2011). 개인적 특성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언어실력의 부족과 문화적응이 미흡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교육 지원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김유진·오성배, 2013). 그들은 모국과는 다른 한국의 교육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자녀의 교육에서 혼란을 경험한다. 이는 자녀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의 낮은 수준의 언어능력과 학교부적응을 초래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교육철학과 양육방식을 살펴보면 문화적으로 상충되는 교육방식과 당장의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박순용·오덕렬, 2012).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하고 교육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자녀교육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동화 및 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증가하는 반면 분리, 주변화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지원 및 사회성지도가 감소하였다(김만호, 2018). 하지만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를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 출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3. 교육 지원활동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영재학부모의 교육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의 양육효능감은 교육지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양육효능감은 교육지원을 많이 할수록 높았고 교육 지원활동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불안감이 증가하였다(양연숙·권정임, 2010).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 지원행동과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연구한 연구들에서 부모의 학습지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강해지고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문은식·김충희, 2003; 송윤희, 2011).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자녀교육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하는 어머니일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지원을 살펴본 연구는 대다수가 질적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육지원과정에서 수요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밝혀내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학부모의 교육지원이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부모역할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양육효능감을 이끌어낸다는 연구결과를(양연숙·권정임, 2010) 고려하였을 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교육지원과 양육효능감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이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영향을 주고 이는 또다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줌으로써 문화적응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교육 지원활동이 매개효과를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6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녀교육지원은 문화적응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자녀교육지원활동이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해 주는 요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이 자녀교육지원활동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가설

<연구문제 1>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에 따라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있는가?

가설1-1 여성결혼이민자의 동화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1-2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1-3 여성결혼이민자의 분리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을 것이다.

가설1-4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변화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은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인가?

가설 2-1 여성결혼이민자의 동화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이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이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3 여성결혼이민자의 분리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적게 하고 이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2-4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변화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적게 하고 이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3>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는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인가?

가설 3-1 여성결혼이민자의 동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이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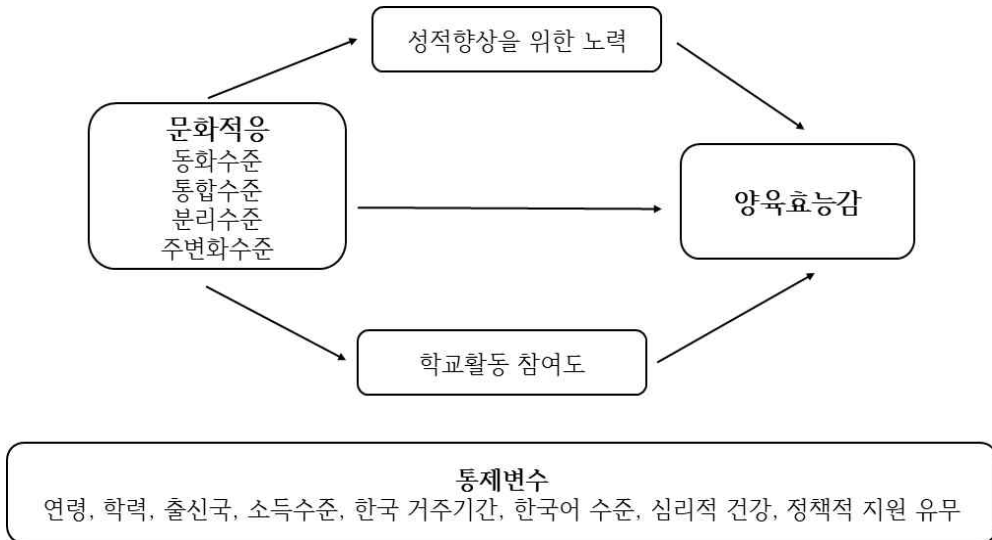
가설 3-2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이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3 여성결혼이민자의 분리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활동에 적게 참여하고 이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3-4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변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활동에 적게 참여하고 이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낮아질 것이다.

2. 연구모형

이상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연구모형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6차년도(2016) 학부모용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보다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6개년에 걸쳐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은 2011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패널이 구축되었고 동일한 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17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현재 진행된 조사 중 제6차 조사가 가장 최신자료로 어머니의 가출, 사망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와 결측값을 제외한 후 총 1,239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6차 조사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은 모두 중학교 3학년 학생이기에 자녀 연령, 자녀 학년과 같은 자녀관련 변인은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 영향에 자녀교육 지원활동이 매개효과를 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교육 지원활동, 양육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에서 적절하게 이상 3개의 요인들을 측정하였기에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변수 측정방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학부모 데이터에서는 신숙재(1997)의 양육효능감 척도 중 9개 항목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을 분석하였다. 해당 데이터에서는 ‘자녀양육생각’이라고 하고 질문하였지만 원자료의 토대가 된 신숙재(1997)를 따라 양육효능감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척도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변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 2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차원은 ‘부모로서의 효능감’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적 차원은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4문항과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3문항, 총 7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평가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상기한 신숙재(1997)의 16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문항의 차원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2개의 차원 중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 7문항과 정서적 차원 중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 2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척도의 구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지 않고 각 문항의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고 평균을 취하여 분석하였다. 그 중 정서적 차원에 속하는 자녀양육생각 8번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다. 양육효능감을 묻는 각 질문에 대한 9개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설명한다. 구

성된 양육효능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s alpha)는 .786이다.

2. 독립변수

문화적응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erry(2001)가 개발한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를 노하나(2006)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부모 데이터에서는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4가지 문화적응 유형을 요인별 문항 3개씩 총 12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의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3개 문항의 평균을 그 유형의 문화적응 점수로 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별 문화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동화 .871, 통합 .785, 분리 .815, 주변화 .859로 확인되었다.

3.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의 매개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이며 성적을 위해 하는 노력과 자녀 학교활동 참여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1)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본 척도는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하는 노력을 묻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학업을 지원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도 있고 학원을 보내는 등 간접적인 지원도 있다. 구체적으로 질문문항들을 살펴보면 ‘직접 학교공부를 가르침’, ‘숙제검사

를 함’,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함’,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함’,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봄’, ‘학원에 보냄’, ‘개인 과외를 시킴’, ‘시험 때가 되면 평소보다 더 공부를 시킴’,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야단을 칩’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모두 더한 합으로 문항수를 나누어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평균치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756이다.

2) 학교활동 참여수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부모용 데이터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으로 9개 문항으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담임교사 면담’, ‘참관수업 참석’, ‘학부모 회의 참석’, ‘학부모 교육 참석’, ‘각종 학교 봉사활동’, ‘운동회 참석’, ‘학생발표회 또는 학교 축제 참석’, ‘1일 교사’, ‘학교설명회 참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의 학교활동 참여 여부를 1= ‘참여’, 0= ‘불참’으로 코딩한 후 합계를 사용하여 9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숫자가 클수록 다양한 자녀의 학교활동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건강 및 사회적지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통제변수로는 연령, 학력, 출신국, 소득수준,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수준, 심리적 건강, 사회적지지 유무가 있다.

먼저, 연령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학력은 ‘중졸이하’=1, ‘고

졸' =2, '전문제 대학' =3, '4년제 대학' =4, '대학원 졸업' =5로 연속형 변수로 분석하였다. 출신국은 '중국'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기타' 등 5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소득수준은 월 평균 가구소득으로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한국 거주기간은 자연로그를 취한 후 연속변수로 통계 처리하였고 한국어 수준은 한국어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수준의 평균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적 건강 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건강을 질문하는 6개 문항을 다 더하고 총합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을 취하였다.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심리적 건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 유무는 '귀하의 자녀가 학교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지원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에는 0으로 더미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3-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내용
독립변수	동화유형	3개문항의 평균. 5점척도
	통합유형	3개문항의 평균. 5점척도
	분리유형	3개문항의 평균. 5점척도
	주변화유형	3개문항의 평균. 5점척도
종속변수	양육효능감	9개 양육효능감 측정 문항의 평균. 5점척도
매개변수	자녀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0~5: 점수가 높을수록 노력을 많이 함
	자녀 학교활동 참여도	0~9: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수준 높음
통제변수	연령	연속변수(26~65세) 1= '중졸이하' , 2= '고졸' ,
	학력	3= '2-3년제 대학' , 4= '4년제 대학' , 5= '대학원 졸업'
	출신국가	'중국' 을 기준변수로 5개 더미변수 형성
	소득수준	ln월평균 가구소득
	한국 거주기간	ln거주기간
	한국어 수준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네 영역의 평균. 5점척도
	심리적 건강	6개 심리적 건강 측정 문항의 평균. 5점척도
사회적 지지 유무	1= '유' , 0= '무' . 더미처리	

제3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 영향에 교육 지원활동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한다.

둘째, 독립변수인 문화적응과 매개변수인 자녀교육 지원활동 및 종속변수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한다.

셋째, 자녀교육 지원활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그리고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투입한 매개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1단계보다 작아졌다면 설정한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교육 지원활동의 하위변인인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과 ‘학교활동 참여도’ 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병렬 이중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하였고 검증 시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5,000개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조사대상자 특성 검토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6차(2016) 학부모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데이터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1,261명이다. 그 중 주요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39명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지닌 인구사회학적 속성은 <표 4-1>과 같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11명(0.9%), 30대는 107명(8.6%), 40대는 851명(68.7%), 50대는 266명(21.5%), 60대 이상은 4명(0.3%)로 나타났다. 40대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50대가 높은 비율로 표집되었다. 이는 본 데이터의 조사대상은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이기에 기존 연구의 여성결혼이민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면 중졸이하가 133명(10.7%), 고등학교 졸업이 576명(46.5%), 2~3년제 대학 졸업은 326명(26.3%), 4년제 대학은 197명(15.9%), 대학원은 7명(0.6%)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대학원이 가장 낮은 수를 점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전체 결혼이민자의 43.6%(122,163명)를 차지하고 대학 졸업 이상이 15.6%(43,739)를 차지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표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출신국가는 중국이 319명(25.7%), 베트남은 31명(2.5%), 필리핀은 328명(26.5%), 일본은 448명(36.2%), 태국은 49명(4.0%), 기타 나라가 64명(5.2%)이다. 본 데이터에서는 일본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필리핀, 중국, 기타나라가 뒤를 이었다.

국가로부터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279명(22.5%), 없는 경우는 960명(77.5%)으로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정책 지원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 로그를 취한 후 평균은 5.4287, 표준편차 0.46872, 최소치는 3.69, 최대치는 6.91로 나타났다. 로그를 취한 거주기간의 경우 평균은 2.8125, 표준편차는 0.22879, 최소치는 1.61, 최고치는 3.74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준은 5점 척도 기준에서 평균 3.0835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적 한국어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내 체류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능력이 제고되고 스스로도 한국어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건강은 5점 척도 기준 평균 4.1968, 표준편차 0.68584, 최소치 1.17, 최고치 5.0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의 우울감이 5점 척도에서 1.4로 나타난 것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본 데이터의 연구대상이 지닌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부터 한국어 수준까지 모집단과 동질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범주	빈도수(명)	백분율(%)	
연령	20-29세	11	0.9	
	30-39세	107	8.6	
	40-49세	851	68.7	
	50-59세	266	21.5	
	60세 이상	4	0.3	
학력	중졸 이하	133	10.7	
	고졸	576	46.5	
	2~3년제 대학	326	26.3	
	4년제 대학	197	15.9	
	대학원	7	0.6	
출신국	중국	319	25.6	
	베트남	31	2.5	
	필리핀	328	26.5	
	일본	448	36.2	
	태국	49	4.0	
	기타	64	5.2	
정책적 지원경험 유무	있음	279	22.5	
	없음	960	77.5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소득수준(로그)	5.4287	.46872	3.69	6.91
거주기간(로그)	2.8125	.22879	1.61	3.74
한국어 수준	3.0835	.51959	1.00	4.00
심리적 건강	4.1968	.68584	1.17	5.00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다음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이다. 변수들의 집중경향도와 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를 살펴보고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표 4-2>는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의 경우, 통합유형이 평균 3.5042로 가장 높고 그 뒤로 분리가 3.2680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동화가 평균 2.9259, 주변화는 2.2542 순서로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 통합 유형이며 다음으로 분리, 동화, 주변화 유형이다. 이는 대체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모국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양상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수의 왜도 절댓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10미만일 때 정규분포와 흡사하다고 여기기에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5점 척도에서 평균은 2.2896, 표준편차는 0.58962로 나타났다. 학교활동 참여도는 평균 2.2849, 표준편차 2.59962이다. 두 개 변인 모두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자녀의 교육 지원활동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간주된다.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변수의 왜도값, 첨도값은 각각 1.037, 0.485이고 학교활동 참여도의 왜도, 첨도는 각각 1.037, -0.049로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3.5839, 표준편차는 0.51804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임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양육효능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왜도는 -0.051, 첨도는 0.145로 역시 정규분포와 유사하다.

〈표 4-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화 적응	동화	2.9259	0.8135	0.009	0.063
	통합	3.5042	0.6729	-0.299	0.589
	분리	3.2680	0.7684	-0.394	0.311
	주변화	2.2542	0.79996	0.157	-0.507
성적향상		2.2896	0.58962	0.343	0.485
학교활동		2.2849	2.59962	1.037	-0.049
양육효능감		3.5839	0.51804	-0.051	0.145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한 후,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앞서 전반적인 변수 간의 상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3〉과 같다. 모든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8미만으로 나타날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결과에서 모든 변인 간의 상관계수 절댓값이 0.006부터 0.452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첫째, 문화적응유형의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를 보면 동화유형은 통합유형($r=.475,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분리($r=-.334, p<.01$), 주변화($r=-.082, p<.01$)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유형 수준은 분리($r=-.161, p<.01$), 주변화 유형 수준($r=-.306, p<.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리유형은 주변화유형($r=.279,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드러냈다.

둘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우선 성적향상을 위해 하는 노력과 문화적응 유형의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를 보면, 성적향상을 위해 하는 노력은 동화($r=.114, p<.01$), 통합유형 수준($r=.192, p<.01$)과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고하였고 분리($r=-.117, p<.01$), 주변화($r=-.058, p<.05$)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교활동 참여도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동화($r=.086, p<.01$)와 통합유형($r=-.170, p<.01$)과는 정적관계, 분리($r=-.145, p<.01$)와 주변화($r=-.149, p<.01$)와는 부적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두 개 매개변수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16, p<.01$).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닌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양육효능감과 동화유형($r=.138, p<.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고 통합유형($r=.349, p<.01$)과도 정적인 상호관계를 드러냈다. 분리유형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주변화유형과($r=-.200, p<.01$)는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은 또한 매개변수인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과는 정적 상관관계($r=.258, p<.01$), 학교활동 참여도($r=.109, p<.01$)와도 역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양육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통제변수로는 학력($r=.156, p<.01$), 출신국, 소득수준($r=.072, p<.05$), 한국어 수준($r=.144, p<.01$), 심리적 건강($r=.262, p<.01$)과 같은 변인이 있고 연령, 거주기간, 받은 사회적 지원을 받은 경험유무는 양육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연령1	1																			
학력2	.136 **	1																		
베트남 3	-.27 5**	-.11 6**	1																	
필리핀 4	-.08 5**	.158 **	-.09 6**	1																
일본5	.438 **	.147 **	-.12 1**	-.45 2**	1															
태국6	-.04 3	-.04 6	-.03 3	-.12 2**	-.15 3**	1														
기타7	-.15 1**	.115 **	-.03 7	-.14 0**	-.17 6**	-.04 7	1													
소득8	-.07 7**	.062 *	.044	-.23 7**	.083 **	-.03 1	.059 *	1												
거주9	.423 **	.071 *	-.26 0**	-.07 9**	.278 **	-.04 9	-.13 8**	.053	1											
한국어 10	-.03 7	-.05 7*	-.07 3*	-.30 5**	.011	-.09 6**	-.07 6**	.175 **	.235 **	1										
심리11	-.08 3**	.013	.037	.005	-.09 1**	.033	.023	.141 **	.008	.125 **	1									
지원12	.005	.079 **	-.02 5	-.01 7	.081 **	.059 *	.031	-.08 7**	-.02 6	-.02 5	-.04 3	1								

동화13	-10 3**	-.09 1**	-.02 1	-.05 8*	-.14 7**	-.02 7	-.02 3	.077 **	.042	.280 **	.115 **	-.01 6	1						
통합14	-.06 4*	.080 **	.036	-.03 8	-.08 2**	.008	.026	.138 **	.050	.221 **	.294 **	.048	.475 **	1					
분리15	.111 **	.040	.032	.104 **	.133 **	.051	-.05 6*	-.08 7**	-.04 6	-.25 5**	-.11 1**	-.01 0	-.33 4**	-.16 1**	1				
주변화 16	.015	-.01 6	.029	.143 **	-.05 4	.036	-.04 1	-.12 9**	-.03 6	-.22 3**	-.30 0**	-.06 5*	-.08 2**	-.30 6**	.279 **	1			
성적향 상17	-.11 0**	.141 **	-.01 6	.021	-.09 8**	-.04 2	.042	.175 **	-.08 0**	.118 **	-.03 1	.136 **	.114 **	.192 **	-.11 7**	-.05 8*	1		
학교활 동18	-.04 9	.179 **	-.03 9	-.06 6*	.077 **	-.03 5	-.00 6	.037	.018	.135 **	-.07 3*	.194 **	.086 **	.170 **	-.14 5**	-.14 9**	.416 **	1	
양육효 능감19	-.04 3	.156 **	-.04 4	.073 *	-.12 5**	.016	.056 *	.072 *	-.02 4	.144 **	.262 **	.017	.138 **	.349 **	-.03 4	-.20 0**	.258 **	.109 **	1

*p<.05, **p<.01, ***p<.001

주) 출신국은 중국을 기준변수로 가변수 처리함

제2절 교육 지원활동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1.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 영향관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각 요인별 수준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4-4>와 같다.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인자(VIF)는 2.3미만으로 나타나며 따라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1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은 19.175로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수정된 R^2 은 .190으로 본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양육효능감을 19.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 학력($\beta = .134, p < .001$), 한국어수준($\beta = .106, p < .001$), 심리적 건강($\beta = .149, p < .001$)이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이 있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 국적인 여성결혼이민자를 기준변수로 출신국을 코딩하였을 때 일본의 β 값이 $-.107(p < .01)$ 로 나타났기에, 중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일본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보다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 소득수준, 거주기간, 정책적 지원경험 유무는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합($\beta = .263, p < .001$)과 분리($\beta = .072, p < .05$)는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고 주변화($\beta = -.081,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나타냈다. 즉 통제변수들과 기타 문화적응 유형을 통제하였을 때 통합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와 분리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이 높고 주변화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은 낮다는 것을 의

미한다. 동화수준과 양육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연구가설 1-2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을 것이다’와 연구가설 1-4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변화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그러나 연구가설 1-1과 1-3은 기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4-4>의 모형 2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 지원활동의 하위변수 2개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본 모형의 수정된 R^2 은 .224로서 모형 1보다 증가하였고 모형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20.813$, $p<.001$). 이는 교육 지원활동의 변수들의 투입이 전체 모형의 설명력을 높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확인해보면 학력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07$, $p<.001$). 출신국은 중국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이 일본출신 여성결혼이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beta = -.083$, $p<.05$). 또한 한국어수준이 높을수록($\beta = .090$, $p<.01$), 심리적으로 더 건강할수록($\beta = .171$, $p<.001$)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통합수준($\beta = .232$, $p<.001$), 분리수준($\beta = .083$, $p<.05$), 주변화수준($\beta = -.086$, $p<.01$)이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통합유형의 베타값은 .232($p<.001$)으로서 모형 1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의 베타값이 .206($p<.001$)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이 통합수준과 양육효능감을 정적으로 부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4>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 영향관계

변수명	모형 1(독립->종속)		모형 2 (독립&매개->종속)	
	베타	t	베타	t
(상수)		6.909***		6.001
연령	.033	1.034	.039	1.259
학력	.134	4.736***	.107	3.819***
베트남	-.048	-1.718	-.038	-1.388
필리핀	.046	1.215	.045	1.223
일본	-.107	-2.794**	-.083	-2.203*
태국	.012	.439	.023	.827
기타나라	.023	.777	.028	.990
소득수준	.012	.423	-.023	-.861
거주기간	-.052	-1.728	-.032	-1.078
한국어 수준	.106	3.381***	.090	2.938**
심리적 건강	.149	5.338***	.171	6.182***
지원경험유무	.009	.326	-.018	-.679
동화	-.012	-.367	-.010	-.312
통합	.263	8.241***	.232	7.320***
분리	.072	2.464*	.083	2.918*
주변화	-.081	-2.752**	-.086	-2.982**
성적향상			.206	7.075***
학교활동			-.016	-.562
F	19.175***		20.813***	
R 제곱	.201(.190)		.235(.224)	

*p<.05, **p<.01, ***p<.001

주) 출신국은 중국을 기준변수로 가변수 처리함

2.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 참여도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녀교육 지원활동의 하위변인 중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은 통합수준과 양육효능감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간접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 참여도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 기법은 두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수 간 상관관계와 연구모형의 측정오차를 반영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통계기법이다(이형권, 2016).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의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교육 지원활동의 2개의 하위요인의 이중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동화유형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과 ‘학교활동 참여도’ 의 이중매개효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 중 동화유형을 독립변수로,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 참여도를 매개변수로, 양육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한 이중매개 모델을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공변량으로는 통합, 분리, 주변화, 연령, 교육수준, 출신국, 소득수준, 거주기간, 한국어수준, 심리적 건강, 정책지원유무가 있다.

기타 문화적응 유형들을 통제하였을 때 동화유형은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학교활동 참여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화유형

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학교활동 참여도 역시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은 양육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99, p < .001$).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동화유형 수준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학교활동 참여도, 양육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동화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매개효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계수	S.E	t	p	LLCI	ULCI	F	R ²
동화	성적 향상	-.007	.0238	-.317	.751	-.054	.0392	12.924***	.1449
동화	학교 활동	-.037	.1047	-.356	.722	-.242	.1682	13.330***	.1488
동화	양육 효능감	-.006	.0197	-.312	.755	-.044	.0325		
성적 향상	학교 활동	.179	.0254	7.075	.000	.130	.2298	20.812***	.2352
학교 활동		-.003	.0058	-.562	.574	-.014	.0081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방법을 실행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다. 총 간접효과와 두 개의 매개효과 경로 모두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기에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Effect	SE	LLCI	ULCI
동화→성적향상→양육효능감	-.0014	.0047	-.0112	.0074
동화→학교활동→양육효능감	.0001	.0007	-.0012	.0020
총 간접효과	-.0012	.0046	-.0109	.0072

2) 통합유형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과 ‘학교활동 참여도’ 의 이중매개효과

〈표 4-7〉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 참여도를 매개효과로, 양육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한 이중매개효과 분석이다. 공변량으로는 동화, 분리, 주변화, 연령, 교육수준, 출신국, 소득수준, 거주기간, 한국어수준, 심리적 건강, 정책지원유무가 있다. PROCESS macro 중 Model 4를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통합은 성적향상($\beta = .1434, p < .001$)을 위한 노력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학교활동 참여도($\beta = .5398, p < .001$)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통합은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beta = .1776, p < .001$),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도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1799, p < .001$). 그러나 학교활동 참여도는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통합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한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통해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통합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의 성적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을 높임을 알 수 있다. 학교활동참여도를 통해서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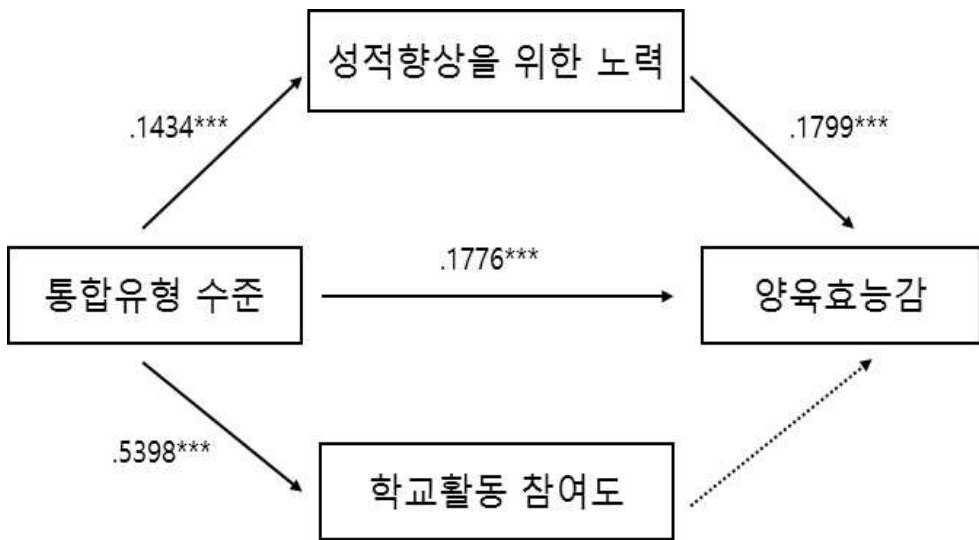
<표 4-7> 통합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매개효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계수	S.E	t	p	LLCI	ULCI	F	R ²
통합	성적 향상	.143	.028	4.957	.000	.086	.200	12.92 3***	.1449
통합	학교 활동	.539	.127	4.242	.000	.290	.789	13.33 0***	.1488
통합	성적 향상	.177	.024	7.319	.000	.130	.225		
통합	성적 향상	.179	.025	7.075	.000	.130	.229	20.81 2***	.2352
통합	학교 활동	-.003	.005	-.562	.574	-.014	.008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에 의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8>에서와 같이 총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이중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240, LLCI=.0110, ULCI=.0387). 통합→성적향상→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Effect=.0258, LLCI=.0133, ULCI=.0407). 이와 같은 결과를 도식화한 모형은 <그림 4-1>과 같다.

<표 4-8>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Effect	SE	LLCI	ULCI
통합→성적향상→양육효능감	.0258	.0069	.0133	.0407
통합→학교활동→양육효능감	-.0018	.0032	-.0085	.0043
총 간접효과	.0240	.0070	.0110	.0387



<그림 4-1> 연구 모형 결과

3) 분리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과 ‘학교활동 참여도’ 의 이중매개효과

다음은 문화적응 유형 중 분리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참여도의 매개효과를 보기위해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공변량으로는 동화, 통합, 주변화, 연령, 교육수준, 출신국, 소득수준, 거주기간, 한국어수준, 심리적 건강, 정책지원유무가 있다. 우선 분리는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503, p < .05$). 분리는 학교활동 참여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392, p < .001$). 마지막으로 양육효능감을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분리($\beta = .0560, p < .01$)와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beta = .1799, p < .001$)은 양육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학교활동 참여도는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분리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매개효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계수	S.E	t	p	LLCI	ULCI	F	R ²
분리	성적 향상	-.050	.023	-2.179	.029	-.096	-.005	12.923***	.145
	학교 활동	-.339	.101	-3.343	.001	-.538	-.140	13.330***	
분리 성적 향상 학교 활동	양육 효능감	.056	.019	2.917	.003	.018	.094	20.812***	.235
	양육 효능감	.179	.025	7.075	.000	.130	.229		
	학교 활동	-.003	.006	-.562	.574	-.015	.008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방법을 실행한 결과는 <표 4-10>과 같다. 표본수는 5,000개로 설정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다. 우선 분리→성적향상→양육효능감 경로의 매개모형은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기에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Effect=.0011, LLCI=-.0026, ULCI=.0058). 분리→학교활동→양육효능감 매개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총 간접효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였기에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식화한 모형은 <그림 4-2>와 같다.

<표 4-10>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Effect	SE	LLCI	ULCI
분리→성적향상→양육효능감	-.0090	.0051	-.0201	-.0002
분리→학교활동→양육효능감	.0011	.0020	-.0026	.0058
총 간접효과	-.0079	.0051	-.0187	.0012

4) 주변화유형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 과 ‘학교활동 참여도’ 의 이중매개효과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유형 중 주변화와 양육효능감 간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 참여도의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변량으로는 동화, 통합, 분리, 연령, 교육수준, 출신국, 소득수준, 거주기간, 한국어수준, 심리적 건강, 정책지원유무가 있다. 독립변수인 주변화수준은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활동

참여도($\beta=-2824.$, $p<.01$)와 양육효능감($\beta=-.0556$, $p<.00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학교활동 참여도는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 참여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4-11> 주변화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매개효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계수	S.E	t	p	LLCI	ULCI	F	R ²
주변화	성적 향상	.014	.022	.626	.531	-.029	.058	12.924	.145
주변화	학교 활동	-.282	.099	-2.865	.004	-.476	-.089	13.330	.149
주변화		-.055	.0186	-2.981	.003	-.092	-.019		
성적 향상	양육 효능	.179	.025	7.075	.000	.130	.229	20.813	.235
학교 활동	감	-.003	.006	-.562	.574	-.015	.008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방법을 실행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본수는 5,000개로 설정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다. 총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이중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변화→성적향상→양육효능감 매개모형과 주변화→학교활동→양육효능감 매개모형 모두 신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기에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2〉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Effect	SE	LLCI	ULCI
주변화→성적향상→양육효능감	.0025	.0044	-.0064	.0111
주변화→학교활동→양육효능감	.0009	.0017	-.0026	.0046
총 간접효과	.0034	.0046	-.0059	.0124

3. 가설검증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3〉 가설검증결과

구분	가설	관계	채택/ 기각
가설 1-1	여성결혼이민자의 동화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1-2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	채택
가설 1-3	여성결혼이민자의 분리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을 것이다.	-	기각
가설 1-4	여성결혼이민자의 주변화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을 것이다.	-	채택
가설 2-1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은 동화유형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을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	기각
가설 2-2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은 통합유형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을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	채택
가설 2-3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은 분리유형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을 부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	기각
가설 2-4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은 주변화유형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을 부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	기각
가설 3-1	학교활동 참여도는 동화유형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을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	기각
가설 3-2	학교활동 참여도는 통합유형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을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	기각
가설 3-3	학교활동 참여도는 분리유형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을 부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	기각
가설 3-4	학교활동 참여도는 주변화유형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을 부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	기각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및 논의

앞서 논의하였듯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양육효능감에 관련이 깊은 요인으로 문화적응과 자녀 교육지원 상황을 논의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화부적응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한국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어한다(김도희, 2008). 또한 언어수준의 제약 등으로 인해 한국의 교육 문화에 부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자녀 교육지원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기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지원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 지원활동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탐색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에서는 자녀교육과 관련한 변인들을 포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을 유형화하여 문화적응 유형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만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자라서 학교에 입학하고 그들도 어느 정도 한국문화에 적응한 이 시점에, 문화적응의 결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 결과가 자녀교육 개입이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문화적응, 자녀교육 지원활동, 그리고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수준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교육 지원활동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고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학력, 출신국, 한국어 수준, 심리적 건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양적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료는 제6차 전국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부모용 조사 자료로 여성결혼이민자 총 1,23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설검증에 앞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방법은 Process macro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 중 통합수준은 양육효능감에 정적영향을, 분리수준은 양육효능감에 정적영향을, 주변화수준은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설 1-2와 가설 1-4가 실증적으로 지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결과는 문화적응 유형 중 통합적 태도가 높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부모인지능력과 부모신념도 높으며 따라서 높은 양육효능감을 보인다는 결과(전보영, 2012)와 같은 맥락이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통합유형과 양육효능감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강만철·이숙자, 2017; 김미영, 2016; 김현경, 2009).

분리수준은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리유형만이 자녀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한지은, 2007)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고 본 연구의 ‘여성결혼이민자의 분리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기각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이주사회에 적응을 잘 하는 것이 꼭 양육효능감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아닐 가능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요인과 분리요인이 양육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고유문화 속에서 정체성이 확립되었을 경우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주류문화를 습득하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이미 잘 확립되어있는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능감을 높

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설명되어진다.

또한 동화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었다. 이는 동화적응 유형은 양육효능감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강만철·이숙자(2017)의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동화유형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한 진형주(2010)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이주사회에만 잘 적응하는 것이 곧 양육효능감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육효능감 향상은 단순히 사회문화적 적응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지원, 타인들의 지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화수준은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문화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주문화의 적응수준도 낮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 양육에서 문화적 이질감의 문제를 겪고 이로 인한 안정감의 결여 등으로 인해 부모역할 효능감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이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통합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제공하는 학업지원과 사회성 지도가 증가한다(김만호, 2018)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많이 할수록 부모효능감이 높고 적게 할수록 부모효능감이 낮다는 연구(양연숙·권정임, 2010)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활동이 양육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지원활동의 하위요인 중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만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고 학교활동 참여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과 양육효능감 간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높은 통합수준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활성화시키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효과가 양육효능감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통합유형을 제외한 기타 문화적응 유형 수준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교육 지원활동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연구결과에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분리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고 자녀교육지원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지원활동이 분리수준과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지만 분리수준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모국에서 형성된 교육관과 학교교육에 대한 철학이 교육 지원활동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분리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는 고유문화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이 확립되었기에 한국의 교육문화에 대해 비판적일 수 있고 그들만의 양육철학을 지니고 있기에 한국 어머니처럼 경쟁적인 교육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박순용·오덕렬, 2012).

주변화수준은 양육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화와 학교활동 참여도는 부적관계가 있지만 학교활동 참여도가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에 교육 지원활동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제2절 연구의 함의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과 양육효능감 간 관계를 연구하였다는데 함의가 있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종속변수로 보고 문화적응의 영향요인을 논의하거나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어느 정도 한국문화에 적응한 이 시점에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 중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4개 유형 가운데 요인별 수준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결과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과 자녀교육 지원활동을 함께 연구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양육효능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이를 다룬 연구는 많았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교육 지원활동과 양육효능감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상의 요인들을 함께 연구하여 문화적응 요인별 수준과 교육 지원활동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은 어떠한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 중 연구가설 2-2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이

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통합적 수준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일수록 부모로서의 인식과 부모신념을 가질 수 있어서 자녀의 교육지원에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양육효능감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문화에 동화되기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국문화를 유지하며 자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 문화적응 태도의 육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실천적 함의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과 분리수준이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의 강화를 통해 양육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분리수준이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정체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일방적인 한국문화에 동화되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신의 고유문화를 상실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스스로 새로운 문화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심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있어서 정체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할 것을 강요하기 보다는 원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주문화를 그들과 함께 동일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유문화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문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한 나라의 문화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여성

결혼이민자가 낯선 문화에 정착하고 적응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착 초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아닌 결혼이전부터 완전한 문화적응을 마치기까지 꾸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지원활동과 양육효능감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지원 과정에서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자녀 연령별, 단계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와 문화, 학교환경과 입시제도,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육아지식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같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수준과 양육효능감 간의 영향에서 자녀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이 이들 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수준이 직접적으로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비해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향상을 위해 문화적응, 교육 지원활동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과 도움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다양한 영역에서 실행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문화적응과 자녀 교육과 관련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이 그들의 실제 삶에 기반을 둔 지원 및 교육을 통해 문화적응과 양육효능감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인식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

든다. 따라서 문화적응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 교육으로 양육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3절 연구의 한계점

앞서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도 한계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6차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부모용 자료를 활용하여 횡단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렇기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이다. 때문에 결과를 전체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제공하는 교육 지원활동과 그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부모효능감이 다를 것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2001년부터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2016년까지 총 6개년에 거친 종단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종단연구를 실시하기에도 적합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을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즉 자녀의 연령의 변화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지원의 변화와 양육효능감의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을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과 학교활동 참여도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 지원활동을 보다 폭 넓고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패널조사를 통한 양적연구로 진행되었기에 기존에 적은 표본수로 진행한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많은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조사내용의 정확도는 확인이 어렵고 심층적인 정보획득에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이미 조사된 설문내용으로만 분석을 진행하기에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면담법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조사내용과 관련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자녀양육의 또 다른 주체자인 남편의 지지와 같은 배우자 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자녀양육은 여성결혼이민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부부간의 공동과업이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요인을 함께 고려하고 조사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1980년대에 통일교회를 통한 일본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에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착기간이 기타 나라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길다. 따라서 현재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자 중 일본 출신 여성이 가장 많으며 이는 기술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에서 표집된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 자료를 2011년부터 추적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지만, 출신국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녔다. 따라서 조사 표본이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문헌

- 강만철, & 이숙자. (2017).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in the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The Mediation Effects of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복지상담교육연구, 6(2), 83-108.
- 강복정, 강기정, 박수선, & 손서희. (2016).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4(7), 451-459.
- 김갑성. (2008).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1), 58-95.
- 김경숙, 공진희, & 이민경. (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 부모의 특성과 유치원 교육 참여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311-335.
- 김규식,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소. J. (2016). 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정착화 과정 연구: 정착 지원서비스 수요와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28(3), 205-238.
- 김도희. (2008). 결혼이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국내박사학위논문)
- 김만호. (2018).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이 자녀교육 수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수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김미연.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과 어머니 효능감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과 정서적 유능감이 자녀

- 양육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용인.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 염동문. (2013).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social adaption on parenting efficacy in marriage immigrant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사회과학연구*, 29(2), 1-21.
- 김성숙. (2009).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사회적 지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국내석사학위논문)
- 김성숙. (2012). 자녀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32(2), 241-264.
- 김소희, & 노윤구. (2018).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영향.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4(2), 174-184.
- 김순옥, & 김현숙. (2016).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와 가족지지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462-473.
- 김승희. (2011).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7-33.
- 김영환, 이승민, & 교육문화연구, 강. J. (2017). 부모교육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네트워크 분석을 적용. 23(3), 75-94.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유진, & 오성배. (2013).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 교육열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1(3), 135-160.
- 김현경.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 격차인식,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s, Perception of the Culture Gap, and acculturation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on

- Parenting Efficacy].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29-254.
- 김현숙.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Types of Marriage Migration Females -Mainly those Living in Busan]. 社會科學研究, 21(-), 139-138.
- 김혜자. (2010).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배재대학교, 대전. (국내박사학위논문)
- 김희경. (2010).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유형분석. [A Subjectivity Study of Types for Stress in Immigrant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Married to Korean Men]. 여성연구, 78(-), 119-158.
- 김희정. (2014).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 향상을 위한 CBT 부모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서울. (국내박사학위논문)
- 남인숙, & 장혼성. (2009).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출신국 문화이해. 사회이론(35), 7-31.
-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국내석사학위논문)
- 류진아.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취학관련 경험과 대처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s and Coping Strategies of Intermarriage Mothers of Children with Entering Schools]. 상담학연구, 12(2), 599-620.
- 문은식, & 김충희. (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Academ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教育心理研究, 17(2), 271-288.
- 박미숙, 김영순, & 홍유나. (2014).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요구에 관한

- 연구. 여성학연구, 24(2), 269-302.
- 박미은, 신희정, & 이미림. (2012).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3(4), 213-244.
- 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 이상균. (2012).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이중문화적 양육 환경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어머니 양육참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65-388.
- 박현주. (20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욕구 반영 비교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서울. (국내석사학위논문)
- 박희진, & 문혁준. (2013).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 81-98.
- 법무부(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내부용 통계월보.
- 배상식, & 서미옥. (2013). 경북지역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교육 실태-자녀교육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43, 195-224.
- 보건사회연구, 김. J.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 연구: 서울·경기 및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33(4), 5-38.
- 서미옥. (2013).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초등학생 자녀교육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초등도덕교육, 42, 95-124.
- 서재복, 권인탁, & 임명희. (201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대한 문화적응 매개 효과 연구. 교육종합연구, 14(1), 225-246.
- 송윤혜. (2011). 부모의 교육 지원활동이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및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학연구, 18(2), 183-202.
- 송지현. (2009). 다문화 가정 부부의 결혼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대전. (국내석사학위논문)
- 송지현, & 이태영.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the Acculturation of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사회복지정책, 41(1),

241-266.

- 신민정, & 이봉민. (2015).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참여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의 관계-경기남부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 부모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2, 1-24.
- 신숙재, & 정문자.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지연, 권순구, & 봉미미. (2016). 부모의 지원, 성취압력과 초등학생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습동기 변인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28.
- 심미옥. (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 안정찬, & 박치형. (2018). 기대교육수준이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부모교육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2(1), 161-184.
- 연은모,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최. J. (201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진로관련행동, 진로장벽인식 간 관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19*, 121-140.
- 염동문, 임채영, & 김한솔(2019).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잠재프로파일분석 활용. *사회과학연구*, 35(33), 187-208
- 양연숙, & 권정임. (2010). 영재학부모의 교육신념과 교육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재와 영재교육*, 9, 163-181.
- 양은호, & 최혜순. (201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Self-efficacy of Preschooler Mothers].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211-230.
- 윤명숙, & 이해경. (2011).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됨을 통한 적응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32, 103-135.

- 이경숙. (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자녀양육행동 및 양육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포천. (국내박사학위논문)
- 이래혁, & 한국아동복지학, 장. J.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양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66), 65-95.
- 이선미, & 이경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Efficacy in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y on Their Parenting Behavior].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71-105.
- 이순자.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관계성 연구.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양. (국내박사학위논문)
- 이승희, & 박응임. (2016). 여성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Korean J Child Stud, 37(2), 143-155.
- 이양희, & 청소년학연구, 김. J. (2013). 학습코칭 프로그램이 학령기 어머니-자녀의 학업관련 변인에 미치는 효과. 20(9), 149-174.
- 이영실, 조명희, & 홍성희.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71-194.
- 이은아. (2013).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노릇과 정체성. 한국여성학, 29(3), 115-146.
- 이은주. (2004).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모의 학교교육참여와 자아존중감 및 자녀양육태도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천.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지선, 도현심, 신나나, & 신정희. (2013). 북한이탈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아동과 권리, 17, 589-623.
- 이지영.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

- 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2), 105-125.
- 이지현, 진수진, 주현정, & 조연실. (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부 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n Language Ability, Self-esteem,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ir Family Health: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Adjustment].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87-98.
- 이현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과 언어소통능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대학원, 전주.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현심. (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에 관한 질적, CQR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1(1), 143-176.
- 이형권. J. (2016). 조절분석과 조절된 매개분석 및 매개된 조절분석의 오해와 진실. 3A(3), 213-248.
- 이혜림, & 조민효. (2014).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3(4), 237-263.
- 임은미, 정성진, & 이수진. (2010). 상담일반 :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on Types and Acculturation Stress]. 상담학연구, 11(3), 957-973.
- 임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89-221.
- 장덕희, 장재원, & 염동문. (2015).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문화적응과 사회자본의 이중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Marital Satisfaction on Parenting efficacy in Marriage Migrant Wome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 Acculturation and Social capital-]. *한국가족복지학*, 20(4), 631-649.
- 전리상,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조. J.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1A(2)*, 277-284.
- 전보영.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와 부모역할 효능감과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4(2), 15-31.
- 전상미. (200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지원 요구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울산. (국내석사학위논문)
- 전은애. (2008).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어머니 문화적응 차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국내석사학위논문)
- 전홍주, 배소영, & 곽금주. (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 161-186.
- 정기선, & 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정명숙. (2008).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07-121.
- 정명희. (2013). 사회적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부모효능감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practices of immigrant women focusing on Parent efficacy]. *청소년학연구*, 20(8), 257-276.
- 정선영.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양육지식과 문화적응 유형의 매개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4(2), 43-61
- 조민경, & 김렬.(2010).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2), 263-289

- 조옥선, & 융합정보논문지, 방. J. (2018). 융복합 시대에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부모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8(4), 173-180.
- 진형주.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최인재, & 오수연. (201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부모지원,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7, 95-113.
- 최현미, Mikyung, K.-G., & 윤명숙. (201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 연구. [The Impact Factors on Depress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社會科學研究, 29(3), 119-142.
- 최형성. (2009).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 [The Mediation Role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Behavior on Child Self-Esteem: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and Korean Mothers]. 兒童學會誌, 30(5), 245-262.
- 최형성.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7), 1-13.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61(1), 163-194.
- 최효식. (2017).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어머니의 사회적 차별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mothers' parenting efficacy in multicultural families: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 열린유아교육연구, 22(2), 61-81.
- 통계청(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정실태조사 분석

- 통계청(2018). 국적, 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 표윤경, & 표윤경. (2012). 양육스트레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국내석사학위논문)
- 한경님.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71-190.
- 한아름. (2016).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교육 지원활동이 남·여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2), 431-452.
- 한지은.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형태와 사회적 지지 정도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서울. (국내석사학위논문)
- 현경자, &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653-677.
- Bandura, A. (2010). Self-efficacy. The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1-3.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2001). Self-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87-20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 Berry, J. W. (2008). Globalisation and accultu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2(4), 328-336.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rosnoe, R. (2005). Double disadvantage or signs of resilience? The elementary school contexts of children from Mexican immigrant famil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2(2), 269-303.
- Epstein, J. (2018).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Student Economy Edition: Preparing Educators and Improving Schools*: Routledge.
- Epstein, J. L. (1987). Toward a theory of family-school connections. *Social intervention: Potential and constraints*, 121-136.
- Fehrmann, P. G., Keith, T. Z., & Reimers, T. M. (1987). Home influence on school learn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high school grad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0(6), 330-337.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Kiang, L., Glatz, T., & Buchanan, C. M. J. F. p. (2017). Acculturation conflict, cultural parenting self-efficacy, and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in Asian American and Latino/a families. 56(4), 943-961.
- Leong, F. T., & Leung, K. J. J. o. V. b. (2004). Academic careers in Asia: A cross-cultural analysis. 64(2), 346-357.
- Luijters, K., Van Der Zee, K. I., Otten, S. J. G. p., & relations, i. (2006). Acculturation strategies among ethnic minority workers and the role of intercultural personality traits. 9(4), 561-575.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 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73.
- Nwadiora, E., & McAdoo, H. (1996).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asi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scence*, 31(122), 477.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 Rhee, S., Chang, J., & Rhee, J. J. A. (2003). Acculturation, communication patterns, and self-esteem among Asian and Caucasian American adolescents. 38(152).
- Swagler, M. A., & Jome, L. M. J. J. o. C. P. (2005).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Acculturation on the Adjustment of North American Sojourners in Taiwan. 52(4), 527.
- Williams, T. M., Joy, L. A., Travis, L., Gotowiec, A., Blum-Steele, M., Aiken, L. S., . . . Davidson, S. M. J. I. M. H. J. (1987). Transition to motherhood: A longitudinal study. 3(3), 251-265.

Abstract

The effect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cculturation on
parenting efficacy

-Mediating effect of education support activ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LI LING

Korean society has been undergoing drastic social changes since the 1990s with the influx of people with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including marriage immigrants and migrant workers, and has been turn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growing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female marriage immigrant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re being included in the family members, highlighting issues related to their child-reari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enter the country without sufficient prior knowledge of Korean culture and society and experience multidimensional hardship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arenting and acculturation, resulting in a double whammy of acculturation and upbringing. Interest in the mental health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is needed.

In this regard, parenting efficacy has an important meaning. Parenting efficacy is the expectation and awareness of the ability of parents to think they can work out well in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child-rearing. Parents who are highly effective in raising children are less aware of the stress and depression caused by child rearing and try to provide their children with desirable parenting. Therefore, the parenting efficacy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t can be noted for acculturation in relation to the increase in the parenting efficacy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cculturation is very importan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to settle down in Korean society, perform well in raising children and promote parenting efficacy. Depending on the type and degree of accultura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parenting behavior of multi-cultural mothers, and the stress of acculturation has an adverse effect on the efficacy of the parent. This suggests that acculturation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parenting efficacy. Next, it is important for mothers to support their children's education in relation to their parenting efficacy. Education support from parents raises emotional closenes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leads to a positive parenting efficacy as well. Female marriage immigrants, who have not adapted well to Korean culture, are not active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have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which lead to low parenting efficacy.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seek alternatives to enhance the

parenting efficacy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rough this theoretical review, this study tries to examine how the accultura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ffects child education support activities and how these activities affect parenting efficacy. The research hypothesis is that the level of accultura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will affect their parenting efficacy, and that their child-education support activities will have a mediating effect. The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research is that it sets accultur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rather than a result variable, examines the impact of acculturation on child education and the parenting efficacy, and verifies the mediating effect of how much acculturation describes child education support activities.

To verify the research theory, the 6th data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was used and a total of 1,239 female marriage immigrants were conducted.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strictly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and the PROCESS macro program proposed by Hayes (2013) was used to verify the dual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integration and separa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e more parenting efficacy they have, the higher the level of marginalization, the less parenting efficacy they have. Second, the higher level of integrat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e more effort they make for thei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thus the higher the parenting efficacy.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while maintaining the identity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s important,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overlooked.

Rather than forci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to assimilate unilaterally into Korean culture,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create policy support and social atmosphere so that they can live by equating migration culture with them while maintaining the original culture. Second, the government's systematic and long-term support should be supported in the process of supporting child education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particular, as children enter school age, they need to prepare and implement various education programs by age and stage of their children.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integrated programs related to the acculturation and child educa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Fourth,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support to enhance the parenting efficacy by changing views on the accultura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by parenting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children's age.

Key words :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enting efficacy, acculturation, Education support activities, Mediating effect

Student Number : 2017-20168